

최정상 성악가들과 함께 오페라 '라 보엠'

올해 9회째를 맞는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이 선정한 작품은 푸치니의 걸작 오페라 '라 보엠'이다. 내달 국내 최정상 성악가들의 열연으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지난해 열린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공연 장면. 서귀포예술의전당 제공

서귀포예술의전당이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키우고 있는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은 문화예술 관객 저변 확대와 오페라의 대중화를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서귀포예당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페스티벌의 문을 여는 전야제 공연(1일 오후 7시 30분)은 애호가들은 물론 처음 오페라를 접하는 관객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오페라&크로스오버 콘서트'로 준비했다.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예술감독 김수정(글로벌오페라 단장)과 음악평론가 장일범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제주출신 성악가 소프라노 강정아와 바리톤 김승철, 서귀포출신 소프라노 고시연·테너 송영규 등이 함께해 공연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서귀포예당, 8월 1~3일 제9회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는 전야제 무대·오페라 특강도

푸치니의 대표 오페라 '라 보엠'은 2일(오후 7시 30분)과 3일(오후 3시) 서귀포예당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양진모 지휘, 윤상호의 연출로 진행되는 '라 보엠'의 여주인공 미미는 소프라노 서선영이 맡는다. 미미의 연인인 가난한 시인 로돌포 역은 테너 신상근이 출연한다. 이외에도 무제타에는 소프라노 박소영, 마르첼로 바리톤 임희성, 콜리네 베이스 박준혁, 알진도로 바리톤 유재언 등 국내 최정상 성악가들이 열정 넘치는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제주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위너오페라합창단, SONUS어린이합창단도 함께해 풍성함을 더한다. 이와함께 오페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이지 오페라 특강'이 2일(오후 2시 소극장) 예정돼 있다.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전석 유료다. 일반 관람권 예매는 이달 15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E-티켓에서 가능하다.

오른지기자 eioh@ihalla.com

4·3예술 이어가는 제주의 청년 미술인들

4·3미술제조직위 '청년사삼정감' 프로젝트 진행 프리뷰 전시·워크숍 등 이어 4·3예술 순례 나서

제주의 청년 미술인들이 한반도 4·3예술 순례에 나선다. 저항·분단·민중과 예술의 현장을 만나고, 제주를 벗어나 제주를 마주하며, 4·3을 한반도의 역사 안에서 바라보기 위함이다.

4·3미술제조직위위원회는 올해 4·3미술제 31회를 맞아 4·3미술의 새로운 30년을 이어가기 위한 프로젝트의 하나로 '청년사삼정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는 청년 미술인을 선정해 올해 4·3미술제 '봄은 불꽃처럼'에서 프리뷰 전시를 진행한데 이어 '사삼정감워크숍' 등을 통해 4·3의 주요 유적지를 돌아봤다. 또 4·3을 주제로 한 강연 및 워크숍에 참여해 4·3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고, 선배 예술가와 만나 4·3예술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방향 및 과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번엔 한반도 순례길에 오른다. 이달 12일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참배를 시작으로 15일 제주를 떠나 임진각, 망향대, 통일촌을 들리고 대구10월

항쟁의 현장과 동학농민혁명의 기억을 찾아가는 이주 광주에서 5·18과 만나고 5·18을 주제로 작업을 이어가는 청년 작가들과 교류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 '여순사건' 현장도 둘러보는 등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20일 다시 제주로 돌아올 계획이다.

"청년 예술가들에 의해 새로운 4·3예술이 시작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될" 이번 '4·3, 예술로 한반도를 만나다' 순례엔 청년작가 김승민, 김지훈, 김호준, 오지원, 최한화, 현유정, 현은주 등 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청년사삼정감' 프로젝트의 결과는 내년 4·3미술제에서 마주할 수 있다.

오른지기자

문화가 쏠리

'제주도 문화원의 날' 기념 및 서귀포문화원 이전 특별전시

서귀포문화원이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지센터 내(1층)로 원사를 이전했다. 11일 오후 3시 원사 신축 이전 기념식이 열리는 가운데 이와 연계해 이전 기념을 겸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의 '제4회 제주도 문화원의 날 기념' 전시회가 개최된다.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전시에선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1986년부터 전국의 지역 전통 향토문화를 소개하고자 월간 발행한 '우리문화' 책자 전시와 함께 특별전시로 지정자 작가의 옛 추억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큐인형 '그땐 그랬지'전이 마련된다.

제주-대구음협 교류음악회

20여 년 넘는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제주와 대구음협회가 올해도 화합의 교류음악회를 이어간다. 12일 오후 7시 30분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펼쳐질 'PASSION(열정)'을 주제로 내건 '2024 제주-대구 교류음악회'다.

타악기 전문예술단체 오퍼커션 앙상블이 협연으로 함께하는 이날엔 한국가곡을 비롯 이탈리아 칸초네와 유명 오페라 아리아 등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무대엔 플루트 김민희, 오보에 홍윤정, 소프라노 박보라와 강정아, 테너 강영수, 바리톤 이호준과 김훈석, 베이스 조광래 등이 오른다. 무료 공연이다.

함덕고 음악과 정기연주회

함덕고등학교 음악과는 오는 15일 오후 6시 30분 제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제8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연주회는 소인영 교사의 지휘로 이뤄질 '진달래꽃'의 3곡의 합창으로 문을 연다. 이어 '힘내라 맑은 물'은 합창 학생들과 졸업생 이름 학생의 해금이 어우러질 예정이다. 김해리 교사의 지휘로 바그너 곡의 3곡이 연주될 예정이다. 마지막 곡으로는 합창과 합주 학생이 다함께 칼 오르프의 'Carmina Burana 'O Fortuna'를 연주한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재학생들의 협연도 준비돼 있다.

국악·합창·미디어아트 향연 마로 '여름날의 굴림풍악'

제주의 전통예술단체이자 사회적기업 (사)마로(대표 양호성)가 굴의 사계를 테마로 만든 레퍼토리 공연 '여름날의 굴림풍악'으로 다시 관객과 만난다.

'여름날의 굴림풍악'은 국악과 미디어아트, 어린이들의 합창을 더한 융복합 공연이다. >> 사인 양호성 마로 대표는 "서귀포의 자랑인 굴을 주제로 함께 노래하고 어우러지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며 "이번에 성사된 표



선면 가마리 '즐거운 아이들 합창단'과의 협연처럼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자주 마련해 마을에서 문화예술 공동체를 이뤄가고 싶다"라고 전했다. 공연은 오는 13일 표선면 마로스

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이번 무대는 ESG 가치를 추구하는 서귀포 사회적경제 체협여행 '서라운드트립'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진행돼 제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관람료의 50%를 지원한다.

'제주 할망 이야기' 담아낸 두 편의 영화 제주여성영화제 제주지역작품 초청공모 선정

'제주 할망의 이야기'를 담아낸 두 편의 영화가 제25회 제주여성영화제 '제주지역작품 초청공모'에 선정됐다.

'제주지역작품 초청공모'는 제주여성영화제에서 2021년부터 운영된 비경쟁 공모전이다. 제주지역 여성 서사를 발굴·지원해 여성주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섹션이다. (사)제주여성영화는 지난 5월 진행된 올해 공모에 각자의 시선으로 제주의 생태, 설화, 인물들을 다룬 총 14편의 작품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최근 심사 결과 최범찬 감독의 '복순씨의 원데이 클래스' (2023, 극영화, 37분 12초)와 박대웅

감독의 '할머니의 레시피' (2023, 다큐멘터리, 18분 24초)가 최종 선정됐다. '복순씨의 원데이 클래스'는 찾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는 대신 자기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복순씨가, '할머니의 레시피'는 본인의 생애사를 기억하고 자기의 언어를 가진 명목씨가 등장한다. 제주여성영화제는 "두 작품 모두 주변부로 밀려나기 쉬운 노년 여성을 고유하지만 고착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평했다.



강 충 룡
(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및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제주지구 총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중문고등학교 총동문회
초대·2대 회장 오충남



강 창 우
(25회)



고 권 진

전국양돈농협조합협의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양돈농협 임원 일동



고 권 진

전국양돈조합협의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별드르 영농조합법인 회원 일동